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부활이요 생명”(요한 11,25)

요한 복음의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겪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 예루살렘 인근 베타니아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많은 등장인물들은 죽음과 관련되어 각각 다른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죽음을 겪은 라자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 유다 지역에 들어온 제자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의 죽음을 막으셨을 것이라 믿는 마르타와 마리아, 치유는 가능하면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느냐는 주변 사람들까지. 그들의 질문에 논리적인 정답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두고 나뉘는 답을 주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음을 다시없는 인간의 한계로 여기면서 ‘죽음 앞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답으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죽음이 없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함을 보이십니다. 결국, 마지막 원수인 죽음은 정하신 때에 극복되겠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마음을 정향하고

관심을 쏟게 됩니다. 부활의 희망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희망은 그 희망을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며, 죽음을 지나쳐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곧잘 고통과 죽음에 압도되어 그것들이 나타나면 도저히 거기서 눈을 뗄 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은 설명되지 않는 고통으로 점철된 것 같고, 하느님은 가끔씩은 도와주셔도 정작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강조점은 보통 십자가의 고통에 귀착됩니다. 하느님은 그저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하시는 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건너다 보게 해 주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겪는 이유는 그것이 주어진 십자가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부활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으니 악으로 갇혀 버텨보겠다는 절망스러운 상황의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리키는 부활과 생명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매겠다는 희망스러운 결단의 표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희망 가운데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자체를 사랑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그 초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주어진 선물의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요한 11,3)



벚꽃이 만개한 봄날. 성큼 다가온 봄을 즐기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길에 몸이 불편한 소녀가 휠체어를 타고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그 소녀에게 봄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늦은 오후 햇살이 주님의 손길처럼 소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소녀에게 다가온 봄이 희망의 날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